

삼성SDI, PDP 일본 추월 시간문제

LG전자, 3기라인 가동 후 생산량 급증 ... 2005년 국내생산 46만4000대

국내 PDP 생산기업들이 2005년 상반기 중 생산량에서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.

디스플레이 마케팅 전문기업인 디스플레이뱅크와 전자업계에 따르면, 삼성SDI와 LG전자, 오리온PDP 등 국내 PDP 생산기업들의 월 생산량 합계는 42인치 기준으로 현재 22만4000대에서 2005년에는 2배 이상인 46만4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
반면, 일본은 FHP와 마쓰시타, 파이오니아, NEC 등 주요 기업들의 월 생산량 합계가 현재 24만7000대로 한국에 앞서 있지만 2005년에는 40만7000대에 그쳐 한국에 처음으로 선두자리를 내줄 것으로 분석됐다.

삼성SDI는 2003년 6월 1기라인 증설과 11월 2기라인 본격 가동으로 현재 월 13만1000대를 생산중이며, 2005년 초 월 12만대 생산이 가능한 3기 라인이 가동되면 총 생산량은 25만1000대로 배가돼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된다.

LG전자는 2003년 8월 구미 2기라인 가동과 1기라인 증설 이후 2004년 7월 3만대 규모의 3기 라인이 가동되면 월 생산량 8만8000대를 유지하다 2005년 2기 라인에 다면취공법이 도입되고 3기 라인이 증설되면 상반기 중에 월 20만8000대까지 생산량이 늘어난다.

일본의 FHP는 2005년 미야자키 3기 라인 가동으로 현재 월 7만대에서 2005년에는 12만대로, 마쓰시타는 이바라키 1, 2기 라인 증설로 현재 월 9만대에서 2005년에는 14만대로 각각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.

또 파이오니아는 시즈오카 2기 라인이 증설되면 현재 월 2만7000대에서 2005년에는 6만7000대로 늘어나고 NEC는 카고시마 1, 2라인의 다면취공법 도입과 증설 등으로 현재 6만대에서 2005년 8만대로 생산량이 증가된다.

2003년 PDP 출하실적은 한국이 63만2000대로 일본 104만9000대에 크게 못 미쳤으며, 타이완은 4만9000대로 3위를 기록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2/05>